

국가경쟁력 평가 모델 고찰을 통한 한국의 국가경쟁력 제고방안

- Improvement Strategy of National Competitiveness for Korea -

최 성 운 *

Choi Sung Woon

백 봉 기 *

Baek Bong ki

Abstract

According to the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WCY), competitiveness of nations looks how nations create and maintain an environment which sustains the competitiveness of its enterprises. To develop economics and join the ranks of the advanced countries in the global market, Korea needs to consider the national competitiveness. Consequently, in this study, first, we try to know a concept of national competitiveness. Second, we also investigate models of national competitiveness. Finally, we suggest an improvement strategy, which is based on models, as compared with many countries of Europe.

Keyword : National Competitiveness Models, Improvement Strategy, Korea, Europe

1. 서 론

현재 우리나라는 IMF 외환 위기를 극복한 이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과 경상수지, 실업률 등의 거시 지표는 빠른 속도로 호전되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주가하락, IT 산업의 침체, 대테러 전쟁 등으로 인하여 세계 경제에 불황의 징후가 나타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채감 경기가 악화되고 있으며, 금융시장의 불안과 경기침체등과 같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한국의 경제가 대외적 변수에 취약한 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단기적 대응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세계의 경제 환경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국가경쟁력 강화전략이 요구된다. 최근 전 세계는 세계화와 지방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으며, 또한 이러한 추세가 향후 계속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어 지고 있다[6]. 이러한 시점에서 국가경쟁력 향상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첫째, 국가경쟁력의 개념을 살펴보고, 둘째, 국가경쟁력 평가모델들을 고찰한 후 이를 바탕으로 하여, 셋째, 한국과 비교하여 인적요소와 보유자원이 비슷한 유럽의 강소국들의 국가경쟁력 비결을 통해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의 제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국가 경쟁력 평가 모형 비교

2.1 국가경쟁력

국가 경쟁력은 그 정의를 내릴 때 개념에 포함될 구성요소의 범위를 명확하게 결정하기가 매우 어렵다. 세계적으로 공신력 있는 국제기관의 평가모델별로 정의를 내려보면[8]

① IMD(Institute for International Management Development)

IMD평가에서는 국가경쟁력을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국가의 총체적인 능력”을 의미하고 있다. 이것은 기업이 국가로부터 효율적인 사회구조, 제도 및 정책을 제공받음으로써 다른 나라의 경쟁기업들과 세계시장에서 경쟁력 우위를 확보할 수 있게 하는 총체적인 능력을 의미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IMD는 경제적, 비경제적 요인 모두를 포함하고 있는 특징이 있으며 국가경쟁력 분석에 있어 국내경제, 국제화, 정부부문, 재정금융, 사회간접자본, 경영능력, 과학기술, 인적자원 등을 8개의 요소를 분석 대상으로 삼고 있다.

② WEF(World Economic Forum)

WEF는 국가경쟁력이라는 개념을 Michael Porter 가 제시한 “한 국가가 국가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국제경쟁력을 갖춘 산업이 다수 있고, 이러한 산업들의 국제경쟁력이 그 국가 안에 존재하는 고유한 원천 때문에 형성되어야 한다.”는 것을 사용하고 있다. WEF는 1999년까지는 성장 경쟁력을 국가경쟁력의 총괄 지표로 사용해 오다가 2000년부터는 성장경쟁력(growth competitiveness)과 현재경쟁력(current competitiveness)으로 분류하여 평가하고 있다. 성장경쟁력은 거시경제 관점에서 국가 경제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정도를 의미하고 있으며, 현재경쟁력은 미시경제적 관점으로 현재의 생산성 수준을 결정하는 조건들을 의미하고 있다.

③ IPS(Institute of Industrial Policy Studies)

IPS에서는 조동성교수가 제시한 9 factor 모형을 바탕으로 국가경쟁력을 평가하고

있다. 9 factor 모형에서는 각각 4개의 물적요인과 인적요인, 그리고 기회사건요인이 국가 경쟁력을 결정짓는다고 보고 있다. <표 1>에서도 알 수 있듯이 물적자원, 경영환경, 국내수요, 관련 및 자원산업의 4개의 물적 요인, 기업가, 근로자, 경영자, 정부와 관료의 4개의 인적요소와 기회요소로써 구분하고 있다.

④EU(European Union)

EU에서는 국가경쟁력을 “경쟁력은 생산성, 효율성, 수익성의 요소를 의미하며 삶의 질을 제고하고 사회적 후생을 증가시키는데 강력한 수단”으로써 정의 하고 있다. 이는 국가차원의 생산성 향상을 의미한다.

⑤U.S.A

미국에서는 국가경쟁력을 “세계시장의 요구에 맞춰 고부가가치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함으로써 모든 미국인들의 실질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는 국가의 능력”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 innovative capacity 확대에 주력해야함을 나타내고 있다.

⑥일본경제연구센터

일본은 “잔재경쟁력은 경제성장의 결과가 아니고, 장래의 경쟁력으로서, 어느 국가가 경쟁력을 키워갈 소지가 있는가 없는가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본의 국가경쟁력 개념은 hard data만을 사용한 경쟁력 평가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2.2 국가 경쟁력 평가모델

IMD는 288개의 평가기준으로 국가경쟁력을 평가하고 있다. 국제기관이 발표하는 경제, 사회통계로 구성되는 182개의 hard data와 설문조사로 얻어진 106개의 soft data로 구성되어 있다. WEF는 경제성과 기술적 역량, 사회간접자본 등의 양적 변수(hard data)와 59개국 4,0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질적자료(soft data)를 사용하고 있다. IMD와 WEF는 세계 양대 국가경쟁력 종합평가기관으로 포괄적인 평가모형방법을 개발하고 있으며, 방법의 지속적인 개선을 하고 있다[10]. 매년 체계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IMD는 59개국, WEF는 75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있고 또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두 기관은 방법론적에서 지수구성, 평가항목, 설문조사의 신뢰성 등의 문제점은 있지만 취약부문, 국제비교적인 시각의 변화 추이 파악 등 그 유용성은 인정하고 있다. < 표 1 >에서도 알 수 있듯이 분류와 평가체계, 평가항목 등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6].

< 표 1 > 국가경쟁력 평가 모델

| 물적·인적 | IMD | WEF (다아아몬드 모델) | IPS (9 factor) | 내부·외부 | SERM | LE |
|-------|--------------------|----------------------|----------------------------|-------|------|------------|
| 물적요소 | 4. 재정금융 5. 인프라 | 1. 요소조건 | 1. 물적자원 2. 경영환경 | 내부요소 | R | 환경 |
| | 1. 국내수요 | 2. 수요조건 | 3. 국내수요 | | E | |
| | 7. 과학기술 | 3. 관련 및 자원 산업 | 4. 관련 및 자 원산업 | | | |
| 인적요소 | 8. 인적자원 6. 경영능력 | 4. 전략·구조·경 쟁 | 5. 기업가 6. 근로자 7. 경영자 | 내부요소 | S&M | 리더쉽 |
| | 3. 정부부문 | 5. 정부 | 8. 정부와 관료 | | | |
| | 2. 국제화 | 6. 기회 | 9. 기회 | 외부요소 | E | 환경과 리더쉽 |

IMD와 WEF는 평가결과의 해석에서 특히 절대 경쟁력 순위에서 신중함을 기해야 하는데, 양 기관 평가의 장점과 단점을 살펴보면, IMD는 평가체계가 단순하고 종합 및 부문별 순위에서 이해가 용이한 반면에, 평가방법의 평면적과 이론적 근거가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다. WEF는 평가체계가 복잡하고 계속 변동에 대한 이해가 쉽지 않고 혼란스러운 단점이 있는 반면에, 이론적 근거가 확실하고 직관적 해석과 합리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장점이 있다[10].

< 표 2 > 한국의 국가경쟁력 추이 : IMD와 WEF

| | 1995 | 1996 | 1997 | 1998 | 1999 | 2000 | 2001 | 2002 | 2003 |
|-----|------|------|------|------|------|------|------|------|------|
| IMD | 26 | 27 | 30 | 35 | 38 | 28 | 28 | 27 | 15 |
| WEF | | 20 | 21 | 19 | 22 | 29 | 23 | 21 | 18 |

< 표 2 >에서는 한국의 국가경쟁력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하락세를 보이다가 2000 년대에 들어와 약간의 증가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지속적인 노력을 하지 않는 한 또다시 언제 하락세로 접어들지 모르는 상황이다.

Michael Porter의 다이아몬드 모델[13]은 한 나라가 경쟁력이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원인을 찾아내는 모델로써는 적합하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것은 설명력이 부족하다. 이에 대한 보완으로 조동성(1995)은 9 factor 모델을 제시하였고 또한 SERM framework를 제시하였다[12]. 9 factor 모델은 기본적으로 다이아몬드 모델과는 차이가 없지만 기업전략과 경쟁을 여러 개로 나누어 전략, 구조, 경쟁 중에서도 주어진 조건은 기업의 경영환경으로 보고, 전략, 구조, 경쟁 중 인적요소와 관련된 것을 다이아몬드 밖으로 빼낸 점에서 차이가 있다. SERM에서는 네 가지 요소를 강조한다. 다시 말해서 주체(Subjective), 환경(Environment), 자원(Resource), 절차(Mechanism)이다. SERM 모델은 동태성과 현실성이 보완되었지만, 경쟁력을 발휘한다는 차원에서 S와 M은 사실상 문리하기가 어렵다. S들 가운데 정부의 역할이 주로 강조되고 있고 S와 M은 상호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이재규(2000)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에서 S가 리더쉽을 발휘하기 위한 기반이 M이기 때문에 SERM 가운데 S와 M을 리더쉽으로 묶을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또한 E와 R은 사실상 환경으로 단일화하는 것을 제시하였다[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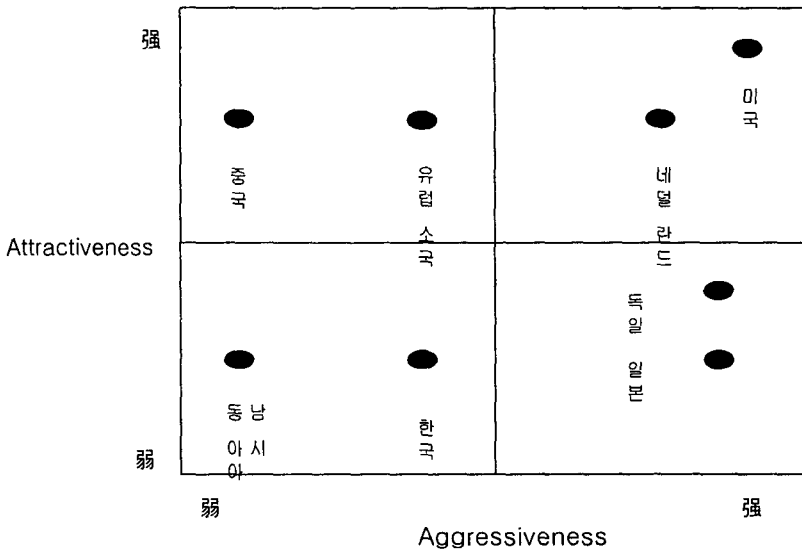
3. 일류국의 국가경쟁력 현황

산업정책연구원(IPS)과 국제경쟁력연구원이 공동 발표한 'IPS 국가경쟁력 보고서 2003'에 따르면 <표 3>에서 알 수 있듯이 1위는 미국이며 우리나라는 칠레와 같이 25위에 있다[11]. 중국은 32위로 우리나라를 조만간에 따라잡을 뿐 아니라 넘어설 것이라는 가능성도 있다. 이밖에 유럽 강소국들도 상위에 위치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일류국의 현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 표 3 > 2003년 국가경쟁력 순위

| 순 위 | 국가명 | 경쟁력 지수 |
|-----|-------|--------|
| 1 | 미국 | 73.88 |
| 2 | 스웨덴 | 63.84 |
| 3 | 캐나다 | 62.48 |
| 4 | 영국 | 62.02 |
| 5 | 싱가포르 | 61.46 |
| 7 | 홍콩 | 61.23 |
| 19 | 일본 | 52.73 |
| 20 | 대만 | 52.01 |
| 25 | 한국 | 48.5 |
| 25 | 칠레 | 48.5 |
| 28 | 말레이시아 | 47.65 |
| 30 | 태국 | 44.92 |
| 31 | 멕시코 | 44.5 |
| 32 | 중국 | 43.41 |
| 33 | 브라질 | 42.38 |
| 34 | 러시아 | 41.62 |

글로벌 시대에서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 전략수단은 크게 공격성(Aggressiveness)과 매력도(Attractiveness)로 대비된다. < 그림 1 >에서와 같이 미국과 네덜란드는 공격성과 매력도에 모두 강한 나라로 나타나있다.[8] 한국은 두 부분에서 모두 약하게 나타나 있으며 중국은 매력도 부분에서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 그림 1 > 공격성과 매력도에 따른 국가 분류

미국은 현재 IT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여 국익을 최대한 추구하고 있으며 특히 정부차원에서 정보통신 기반 확충에 적극투자로 경제 및 시장구조, 산업구조, 직업구조 과학기술구조로 전환하고 있다[8].

네덜란드는 1982년부터 시작한 경제개혁을 통해서 경제번영과 동시에 사회적 조화를 달성하였다. 그러나 당시에 네덜란드 병이란 문제로 인해 재정위기를 맞게 되었다. 이에 정부, 노동조합, 기업이 서로 위기극복이라는 인식하에 이를 극복하게 되었고 재정적자 규모를 낮춰 경제 인프라를 구축하였으며 정부는 연구개발과 교육훈련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산학 파트너십 구축에서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였고 벤처지원을 위해 투자를 지원하여 기술개발의 상용화 확대를 추진하였다. 특히 미국에 비해 사회복지에 대한 유럽식 골격을 기본적으로 유지하면서 노동시장의 유연화, 정부재정의 건전화 등 경제전반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통해 성장활력을 제고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네덜란드는 더치모델(Dutch Model)의 체제를 하고 있는데 이는 많은 나라의 선진국 모델 대상이 되고 있다. 네덜란드는 협소한 내수시장의 한계를 벗어나려는 대외지향적인 산업 정책을 통해 공격성을 강조한 전략수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려 하였다. 네덜란드의 대외지향적인 상인정신과 인적자원상의 강점이 수출경쟁력을 강화 시키는데 크게 작용하였으며 해외 진출의 기반이 되었다. 또한 네덜란드는 전통적인 수출 기반인 낙농업과 화훼산업을 고부가가치화하고, 필립스를 필두로 디지털 기업의 세계화와

공격적인 해외진출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였다[4][8].

IMD에서 발표하는 세계경쟁력 연감을 살펴보면 상위에 랭크되는 유럽 소강국의 명단을 알 수 있다. 그중 핀란드,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아일랜드, 스웨덴, 스위스 등의 나라이다. 이들 각 나라들을 살펴보는 것 또한 우리나라와 비슷한 환경에 있다는 점에서 필요하다.

먼저, 핀란드는 IMD의 보고서에서 3위를 차지할 만큼 유럽에서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인구 5백만정도의 작은 국가지만 노키아와 같은 세계적인 첨단 정보통신 기업을 바탕으로 한 첨단산업으로 높은 경제성장률을 이루면서 주목을 받게 되었다. 핀란드는 80년대 말 90년대 초 경제위기를 맞이하였으나 이를 극복하고 산업구조조정을 통해서 경제성장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특히 민관파트너십을 형성해 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국가와 지방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미래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한 것과 시장개방, 금융시장의 활성화와 주주중심의 기업경영, 핀란드 국민의 근면성이 성공의 발판이었다고 할 수 있다[6].

덴마크는 유연한 사회복지체제를 바탕으로 복지재정의 안정성과 국민경제의 유연성을 동시에 달성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덴마크 체제의 특징은 높은 사회복지 수준을 유지하면서도 고용축소와 재정적자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으며, 미래 사회복지체제의 개혁이 가능하였으며 이로 인해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킨 예라 할 수 있다[4].

스웨덴의 특징은 노·사·정의 생산성 연합으로 경제체제를 구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국민 전체에게 최고 수준의 복지혜택을 제공하려는 목표아래 외형적으로 포괄적인 복지체제의 구축과 협조적인 노사관계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위해서 높은 과세수준을 요구하는 대신 기업들에게 자율적인 경영권과 협력적인 노사관계를 보장하였고 협력적 노사관계를 통해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였다[4].

스위스의 높은 경쟁력은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정착한 것에서 이루어졌다. 특히 종교 개혁 이후에 자본주의적 전통이 뿌리내려 졌다. 국가체제 역시 절대군주체제가 아닌 연방제 공화국 형태에 가까웠던 점이 스위스가 자본주의 체제를 정착하는 데 있어서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스위스는 중립적 외교노선과 정치적 안정으로 인한 요인이 작용하였으며, 전쟁으로 인해서 기존의 생산기반이 파괴되지 않아 일류국으로 가는 발판이 되었다. 스위스는 지리적인 이점으로 인해서 다른 나라와의 무역이 성행하였다. 이러한 점으로 시장경제개방이라는 것을 보다 쉽게 할 수 있었으며 기업의 국제화를 통하여 일류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다. 경제적으로는 금융업, 첨단 정밀화학 산업, 연구개발, 관광업 등 고부가가치 산업을 형성하고 있어 산업 고부가가치화를 통해서 경쟁력 향상을 이루어 왔다[4].

아일랜드는 2000년도에 IMD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영국, 일본 등을 제치고 7위에 오른 유럽강소국 중의 하나이다. 아일랜드는 공격적인 외자유치를 통해 경제도약을 이룬 케이스이다. 과거 제조업 통제법의 철폐를 통해 외국인 유치에 들어가면서 개방정책의 시발점이 되었다. 이렇듯 아일랜드에 외자를 유치하게 된 요인은 세제상의 혜택과 양질의 노동력이 바탕이 되었다. 특히 화학, 컴퓨터, 소프트웨어, 제약 분야에서 세계 다국적 기업을 유치하여 유럽시장을 겨냥한 생산기지로 부상하게 되면서 델(Dell),

게이트웨이(Gateway), IBM, 마이크로소프트 등 대기업들이 아일랜드 제조업의 성장을 주도하였다. 또한 이러한 산업인프라의 유지를 위해서 지역균형 발전 등과 같이 국가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아일랜드 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경제기반을 강화하는 전략도 세울 방침에 있다[4].

우리나라는 현재 IMF 경제위기를 벗어나고 있는 과도기적 상황에 처해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일류국들이 어떻게 치열한 글로벌 경쟁속에서 경쟁력을 향상시켜 왔는지 조명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와 환경이 비슷한 유럽 강소국들의 경쟁력 향상 비결을 요약해 보면[1][9], 첫째, 적극적인 해외진출을 통해 생산요소를 확보하고 동시에 규모의 경제를 개방과 경쟁우선 원리에 의해 시장개방을 통한 글로벌 시장 진출과 외국인 투자 유치를 들 수 있다. 둘째, 선택과 집중에 의한 경쟁력 있는 자국의 산업특화 전략을 세운점이다. 셋째, 유럽의 특징은 자원과 인력의 제한으로 인한 제조업부문에서는 약하지만 금융업부문에서는 강한면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금융경쟁력을 바탕으로 하여 실물경제 자금을 공급하여 경쟁력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글로벌 시장은 지식경쟁력이 또한 중요하다. 유럽 강소국들은 이러한 점을 간과하지 않고 교육과 기술개발에 대한 집중투자로 인적자원개발, 연구개발 등을 통해서 인프라를 구축하여 경쟁력을 확보하였다. 다섯째, 네덜란드와 덴마크와 같이 성공적인 구조조정과 노·사·정부의 협력으로 인해 유연한 노동시장과 효율적인 복지시스템으로 경쟁력을 추구하고 있다.

4. 한국의 국가경쟁력 현황 및 제고방안

4.1 한국의 국가경쟁력 현황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인 국가경쟁력 모델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현황을 알아보고 제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표 4 >에서는 대표적 기관별 한국의 국가경쟁력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표에서 알 수 있듯이 물적요소, 인적요소 모두에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5].

< 표 5 >에서는 이러한 취약부분에 대해 IMD와 WEF가 공통으로 지적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5].

IMD와 WEF 그리고 IPS에서 말하는 물적요소와 인적요소는 <표 1>에 나타나 있다. 취약부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물적요소의 경우 금융의 경우 한국의 국제신용등급은 비슷한 경제규모의 국가들 가운데서 낮은 편에 속하고 있다. OECD 30개국 가운데 우리보다 신용도가 낮은 국가는 4개에 불과하다는 점은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자본시장과 주식시장 규모 역시 경쟁국들에 비해 낮다. 인프라 면에서는 물류, 에너지 등 기간인프라 수준이 열악하다. 특히 연구개발투자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국제표준화에 발맞춰 그에 따르는 국가경쟁력을 잘 갖추고 있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인적요인의 경우 무엇보다도 CEO 육성·선발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부족함으로 인해 경영인의 능력, 기업가 정신이 떨어지며 이로 인해 경영능률이 저하되고 있

으며 교육에 대한 투자부족으로 인해서 인력개발이 둔화되어 결과적으로는 국가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 또한 세계화에 발맞추어 기업들의 수동적인 대처가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표 4 > 기관별 한국의 국가경쟁력 현황

| 기관 | 우리나라 국가경쟁력 현황 |
|-----|--|
| IMD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3년 총 30개국(인구2천만이상그룹) 가운데 15위를 기록하였으며 2002년에 비해 5단계 하락하였다. · 기업경영의 효율성 부문이 가장 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부적으로는 개방화, 교육투자, 경영투명성, 사회적 결속 문제 등이 지적되었다. |
| WEF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2년 성장잠재력 지수(GCI)는 75개 국 중 21위, 경상경쟁력 지수(CCI)는 23위를 기록하였다. · 대외개방 수준, 기업활동 및 전략부문에서의 경영인의 자질 관련, 부패부문, 공공제도, 여성인력, 노사협력 항목 등은 매우 취약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
| IPS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2년 종합순위 24위이며 준선진국그룹에서 1위 기록하였다. · 부존자원과 근로자 분야가 매우 취약한 부문으로 지적되었다. |

< 표 5 > 우리나라 경쟁력 취약점

| 요 인 | 취 약 항 목 |
|------|---|
| 물적요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가가치 부문 - 기업관리, 특허 및 저작권에 대한 법적보호, 과학인프라 기술개발투자, 신기술의 기업적응력 -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민간투자, 사회적 결속 - 금융기관의 투명성, 주식시장, 국내기업의 외국자본시장 활용 |
| 인적요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효율성, 공공 재정관리, 정책의 투명성, 경제변화에 대한 정치체제의 적응성 - 경영인의 능력, 기업가 정신, 경영능률 및 기업문화, 경영진의 사회적 책임의 인식, 노사관계 및 노사분규, 유능한 고위경영자 부족 - 대내외 투자의 부진과 불리한 교역조건이 갖는 문제로 인한 개방성, 수입장벽, 국제투자, 해외 자본시장 접근 - 교육에 대한 투자부족으로 인한 지식인력부족, 교육구조, 대학교육, 여성경제활동인구 |

4.2 국가경쟁력 제고방안

본 연구에서는 앞서 제시한 < 표 1 >의 국가경쟁력 평가기관의 모델[6]을 기준으로 물적요소와 인적요소에 대하여 우리나라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한 제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물적요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첫째, IMD의 재정금융, 인프라, WEF의 요소조건, IPS의 물적자원 경영환경에서 우리나라는 중소규모국가에 주어지는 제약요인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금융시스템의 투명성과 안정성유지와 기업경영구조 등 경제체제 전반을 효율화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강화해야하며 이를 위해 우리나라와 환경이 비슷한 유럽강소국의 운영을 벤치마킹하는 방안을 제고하고 이와 동시에 기업경영환경등을 개선하여 경영의 효율성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산업인프라 구축에 대한 일류국의 예를 보기삼아 이를 적극 추진해야 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둘째, 국내수요에 대한 것으로써 거시경제의 안정화를 들 수 있으며, 셋째, 과학기술, 관련 및 자원산업에 대한 방안으로는 최근 국제표준이 하나의 이슈로 떠오르면서 표준화와 특허권 및 지적재산권에 대한 시스템 통합 전략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과학인프라를 위한 기술개발투자 방안과 새로이 등장하는 신기술에 대한 기업들 스스로 적응하는 방안을 취해야 할 것이다. 류상영(2001)에서는 우리나라가 일류국으로 가기 위해서 민주화, 세계화, 디지털화하는 세 개의 허들을 제시하고 있다[3]. 세계화를 통해 세계시장과의 개방, 디지털화를 통해 우리나라가 성장할 수 있는 근간을 설명하고 있다. 임영모(2003)의 연구에서는 10대 미래기술을 소개함으로써 미래기술 확보를 강조하고 있다[7]. 10대 미래기술로는 SoC(System on a Chip)기술로써 반도체와 각종 부품을 하나의 칩으로 구현하는 기술, 탄소나노튜브로 미래의 반도체, 센서 등에 핵심소재로 사용될 신물질, 전자종이로 종이처럼 얇고 구부러지는 디스플레이, 서비스 로봇으로 인간의 가사와 사무업무를 지원하는 로봇, 에이전트 S/W로 업무를 지원하는 지능형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또한 Ad-hoc 네트워크(임기응변 네트워크)로 분산형 무선통신 네트워크기술, 양자암호로써 해킹을 근본적으로 마근 암호기술과 수소에너지를 이용한 고효율 무공해 발전기인 연료전지 기술, 프로테오믹스(Proteomics)로 인체내 단백질의 구조와 기능을 해명하여 맞춤형 신약을 개발하는 기술과 마지막으로 인공장기를 들고 있다.

인적요소에 대한 것으로, 첫째, 인적자원 경영능력, 전략·구조·경쟁, 기업가, 근로자, 경영자에 해당하는 방안으로는 인력개발은 소규모 국가에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수적이기 때문에 인적자원 개발에 대한 투자방안을 세움으로써 이로 인해 경영자들은 경영능력을 갖게 되고 근로자 역시 고급인력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다[2].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교육에 대한 투자가 부족함으로 인해 인적자원 개발에 있어서 그 문체점을 드러내는데 투자에 적극 참여하는 방안으로 궁극적으로는 국가경쟁력 강화에 힘써야 할 것이다. 셋째, 정부와 관료에 대한 방안으로써 유럽강소국이 추진했던 것으로 노·사·정부의 화합에 대한 방안과 노력이 필요하고 사회복지에 대한 내용에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또한 정책의 불투명성으로 인해 경제혼란을 야기하는 일이 없도록 정책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가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제화에 대

한 것인데 현재는 세계가 장소의 제한이 사라지면서 무역장벽 또한 사라지게 되었다. 이는 세계시장이 하나로 통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우리나라 역시 이러한 시장에 대한 변화에 경쟁력을 갖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세계화와 더불어 국가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국제투자를 효과적으로 하는 방안, 불리한 교역조건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가경쟁력을 높여야 할 것이다.

5. 결 론

최근 들어 IMD, WEF 와 IPS 기관들의 평가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은 약화되고 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국가경쟁력의 향상은 글로벌 시대를 맞이하여 필수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경제안정과 무한경쟁시대에 맞는 종합적인 전략을 수립하여 이를 추진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미 많은 나라들이 일류국이 되기 위해 그들 스스로 노력하고 있다. 유럽강소국은 우리나라와 같은 환경적인 요소들을 가지고서 이미 높은 국가경쟁력을 가지고 세계시장에서 일류국의 대열에 끼여 있다. 우리나라 역시 국가경쟁력 향상으로 일류국에 포함되기 위해서 이들을 조명해볼 필요가 있으며 그에 맞는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가경쟁력 모델에서 평가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는 요인들을 기준으로 일류국의 현황을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갖기 위한 방안들에 대해 논해보았다. 세계적으로 IMD, WEF와 IPS가 국가경쟁력을 평가하는 대표적인 기관이다. 이들 모델에서는 물적요소와 인적요소로써 크게 구분하고 있으며 각각의 요소는 <표 1>에 나타나 있다. 우리나라는 IMD와 WEF의 평가에서 볼 수 있듯이 물적·인적요소 모두에 취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첫째,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 물적·인적 요소를 모두 고려한 방안과 이를 적극 추진하는 전략이 필요하고 둘째, 유럽강소국 및 강대국들의 성공적인 전략들을 벤치마킹하여 우리나라가 보다 신속하게 일류국으로 가기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노·사·정부 모두가 이러한 환경에 대한 인식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할 것이다.

향후연구 과제로 앞에서 제시한 전략들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6. 참 고 문 헌

- [1] 강선구, "유럽 소강국들의 경쟁력 비결", PP 16-22, LG 주간경제, 2001.
- [2] 김성표, "한국 기업경쟁력의 실상과 과제", CEO Information, 제 377호, PP 1-28, 2002.
- [3] 류상영, "일류국으로 가는 길", CEO Information, 제 301호, PP 1-33, 삼성경제연구소, 2001.
- [4] 박병관, "서유럽중소형 국가들의 생존전략과 시사점", LG 경제연구원, 1999.

- [5] 송권호, "IMD와 WEF의 국가경쟁력 평가방법 비교", 무역연구소, 2003.
- [6] 이재규, "LE 모델로 분석한 핀란드의 국가경쟁력", 국제경영연구, 제 11권, 2호, PP 97-139, 국제 경영학회, 2000.
- [7] 임영모, "산업판도를 바꿀 10대 미래기술", CEO Information, 제 403호, PP 1-29, 삼성경제연구소, 2003.
- [8] "국가경쟁력의 현실과 정책방안", 삼성경제연구소, 2001.
- [9] "서유럽 중소형 국가들의 경쟁력에서 배운다.", PP 5-9, LG 주간경제, 1999.
- [10] "한국의 국가경쟁력, 이대로 괜찮은가", 심포지엄, 서울대학교 국가경쟁력연구센터, 한국개발연구원, 삼성경제연구소, 2003.
- [11] "IPS 국가경쟁력 보고서", 산업정책연구원, 국제경쟁력 연구원, 2003.
- [12] Cho, D. S, "From National Competitiveness to Bloc and Global Competitiveness", The IPS Working Paper, 1995.
- [13] Porter, M., "The Competitive Advantage of Nation", Free Press, 1990.

저 자 소 개

최 성 운 : 현 경원대학교 산업공학과 교수 재직 중. 한양 대학교 산업공학과에서 공학사, 공학석사, 공학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1994년 한국과학재단 지원으로 University of Minnesota에서 1년간 Post-Doc을 수행했으며, 2002년부터 1년 반동안 University of Washington에서 Visiting Professor를 역임하였음. 주요 관심분야는 자동화 생산 및 창치 산업에서의 품질관리이며, 컴퓨터·정보통신시스템의 신뢰성 설계 및 분석, RFID 시스템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음.

백 봉 기 : 경원대학교 산업공학과 졸업, 경원대학교 산업공학과 석사과정 재학 중. 관심분야는 품질경영, 품질측정, 품질정보시스템 및 품질경영에 관심을 가지고 있음.